스포츠로 도약하는 무안군, 건강한 도시·지역경제 함께 이끈다

대규모 스포츠대회·전지훈련 유치로 경제적 파급 효과 기대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스포츠 체육 인프라 확충
생활체육으로 만드는 활력 넘치는 건강한 도시 조성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스포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스포츠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올해 체육 예산을 전년 대비 14% 증가한 153억을 투입해, 전국·도 단위 규모 대회 개최, 전지훈련 유치, 체육 인프라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외부 방문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무안은 겨울철에도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지닌 데다, 무안국제공항과 고속도로, 조성 중인 KTX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스포츠 산업이 성장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군은 이러한 지리적·환경적 강점을 토대로 체육시설을 신설하고 현대화해, 스포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스포츠 산업은 단순한 체육을 넘어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함께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스포츠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다양한 대회를 유치해 무안이 명실상부한 스포츠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경제적 파급 효과 기대

지난해 무안군은 제2회 무안황토골 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등 17개의 전국 및 도 단위 규모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총 1만 2천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62개 팀, 3만 1천여 명이 참여한 전지훈련을 통해 30억 원 이상의 체류형 직접 소비를 창출해 비수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023-2024시즌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실적 평가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달성했다.

올해는 13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개최,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5만 명 이상의 방문객 유치, 48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 창출을 목표로 스포츠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2002년 창단 이후 수많은 전국대회 우승을 거두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실업 검도팀으로 거듭난 '무안군 직장검도부'를 중심으로,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검도 전용 경기장이 포함된 208억 원 규모의 무안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신축 공사가 마무리되면, 전국 검도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스포츠 체육 인프라 확충

무안군은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해 권역별 체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며,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남악신도시에 2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주민들의 복합 스포츠 여가 공간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총 337억 원 규모의 남악신도시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수영장과 실내 서핑장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 공간이 마련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어르신의 스포츠 참여 확대와 신체·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무안스포츠파크 내 (구)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해 41억 원 규모의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가 건립 중으로, 스크린 파크골프장과 운동처방실, 탁구장 등이 들어선다.

아울러, 시니어 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의 수요를 반영해 30억 규모의 '몽탄 늘어지 파크골프장'이 조성되고 있다. 영산강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즐길 수 있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165억 원 규모의 '반다비 체육센터'와 95억 원의 예산 투자로 '복합 스포츠타운' 이 조성될 예정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 공간을 위해 현재 입지 여건 분석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모두를 위한 보편적 체육 복지가 실현될 전망이다.

◇ 생활체육으로 만드는 활력 넘치는 건강한 도시 조성

무안군은 군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축구, 배드민턴, 탁구, 생활체조, 수영, 게이트볼, 핸드볼 등 7개 종목에 전문 강사를 배치해 생활 밀착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능동적 여가 생활 향유 지원을 통한 생활 속 활력을 더하고 있다.

또한, 주민생활체조 프로그램, 주민건강증진 체육교실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운동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삶과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역 내 체육 동호인들의 사기 진작과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체육대회도 활발히 열고 있다. 매년 11월, 25개 종목 3,000여 명이 참석하는 '무안군 생활체육대축전'를 통해 체육인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태권도, 배구, 골프 등 18개 종목별 '황토골 배 체육대회'를 개최해 선의의 경쟁 속에 실력을 겨루며 스포츠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무안군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보급해, 모든 군민이 언제 어디서든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건강 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무안군 제공

나주시, 각종 체육행사 개최로 지역 활력

제42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 도 대표 선발 태권도대회 등

나주시에서 제42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대회,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전남대표 선발 1차전, 제41회 전라남도지사기 태권도대회, 제23회 나주 배꽃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 등 각종 체육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나주시 제공

운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체육 선수들의 우렁찬 기합과 파이팅 넘치는 관중들의 응원 소리가 나주시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국내 최대규모 사이클대회인 '제42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대회'가 지난 12일 시작해 17일까지 전남사이클경기장에서 6일간 치러질 예정이다.

전국 91개팀, 선수 445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녀 일반부, 18세 이하부, 15세 이하부로 나뉘어 스프린트, 200m기록, 500m 독주 등 총 19개 종목에서 열띤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다.

앞서 지난 주말엔 대한민국 국기 스포츠인 태권도의 향연이 펼쳐졌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전남대표 선발 1차전과 제41회 전라남도지사기 태권도대회 겸 제16회 도지사배 태권도 품새대회가 12~13일 이틀에 걸쳐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렸다.

전라남도태권도협회, 나주시태권도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엔 태권도 유망주, 도 대표 후보 등 선수 1200여명이 대거 참여해 장내를 우렁찬 기합 소리로 가득 메웠다.

전남대표 선발 1차전은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출전권이 걸린 중요한 관문으로 열기를 더했다.

도지사기 대회와 품새대회는 태권도의 대중화,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로 겨루기와 품새 종목 모두에서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같은 날 나주 반다비 체육센터, 나주초등학교, 나주중학교 등에선 강력한 스파이크와 짜릿한 블로킹이 맞서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졌다.

나주시배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제23회 나주 배꽃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에는 73개팀, 1500여명의 전국 배구 동호인들이 총출동해 팀워크를 겨뤘다.

특히 최근 개관한 나주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개최한 첫 공식 대회로 의미를 더했다. 오는 4월 16일부터 18일엔 나주시 론볼경기장에서 3일간 '2025년 전라남도지사배 전국장애인론볼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론볼은 잔디 또는 실내 경기장에서 금속 공을 굴려 표적구에 최대한 가깝게 붙이는 경기이다. 신체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종목으로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활동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번 대회엔 전국 장애인 론볼선수, 임원진 250여명이 나주를 찾을 예정으로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각종 체육행사를 통해 봄의 일상을 되찾은 나주를 방문해주신 전국 선수, 임원진, 관광객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머무시는 동안 불편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값진 결실과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실 수 있도록 체육 시설은 물론 외식, 숙박, 관광 시설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검도대회 영광에서 열려

전국생활체육 검도의 열기, 영광에서 타오른다

3개년 전국단위 종합 스포츠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대회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전라남도에서 진행된다. 이 대회는 오는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 목포종합경기장 등 58개 경기장(20개 시·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41개 종목 중 검도 대회가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약 4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검도대회는 ▲12세 이하부 ▲15세 이하부 ▲18세 이하부 ▲여자 일반부 ▲남자 일반부로 나뉘며 시·도 대항전 및 토너먼트 단체전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계자는 "대회 준비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참가 선수들과 관람객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히며,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대한민국 생활체육 동호인의 최대 축제로서 전라남도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이현식 기자